

과목명: 대학 글쓰기  
학과명: 작업치료학과  
이름: 박민찬  
학번: 202211476

평: 1) 주제가 설득력 있는 상상력을 전개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어려움. 2) 인간의 흑역사를 보여주는 책을 왜 지적 외계생명체에게 소개해주려고 하는지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함. 3) 내용의 대부분이 책 한 권의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임. 4) 주장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아쉬움. 5) 책 이외에 다른 참고자료도 활용하고, 각주로 남겼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글씨체 바탕, 글씨크기 11, 줄간격 160%, 분량(OT자료 참조)

제목: 지적 외계생명체가 인간에 대해 알고자 책 한 권을 요구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 하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 서론

필자는 본래 인간의 본 모습이란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하고, 욕심 많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흑역사'에는 필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인간의 흑역사'를 인간을 알고 싶어 하는 외계생명체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무작정 인간에 대해 좋게 써 놓은 책을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 인간의 나쁜 점을 담아둔 이 책을 추천한다. 모두 살면서 인간에게 당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간을 처음 아는 외계생명체에게 인간의 나쁜 점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이 책을 추천한다. 인간의 나쁜 점을 먼저 본다면 후에 알게 될 좋은 인간들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 질 것이다.

## 2. 본론

### 2-1. '인간의 흑역사'의 내용 (인간의 실수와 오류들)

인간의 욕심이란 끝도 없고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책은 인간의 사고방식 허점을 날날이 파헤친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로 뇌의 한계, 사고방식의 한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간 중간 '기이한 광풍 top5'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이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기이했던 광풍들을 모아둔 것이다. Top5 중 하나로는 '무도광'이 있다. 무도광이란 14~17세기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신들린 듯 갑자기 춤을 추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춤을 췄다고 한다. 인간의 흑역사 중에서는 '식민주의'를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잔인하고 불평등했던 역사다. 식민주의의 사상자가 세계 대전 사망률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수의 노예들이 죽음을 당하고, 아프리카의 노예무역, 강제수용소, 위안부 문제까지 식민주의의 피해들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저자는 '식민주의는 사실 좋은 것이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을 환경과도 연결했다. 좋았던 환경마저 인간의 발길이 닿는 다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라고 말했다. 필자가 내용 중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은 코인을 다룬 주제였다. 코인은 너무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필자는 단점을 더 중심으로 봤다. 코인 채굴 시스템에서 나오는 엄청난 전지 소비량과 너무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하는 것 이었다.

## 2. 2. 인간의 실수들과 오류들로 인해 깨달은 점

이 책을 읽고 아름다운 역사 속에는 악한 인간의 만행들이 너무 많이 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부분이 욕심에 의해 일어난 일들이다. 이 책에서 거론하고 있는 '휴리스틱'과 '확증편향'으로 인해 인간은 어리석은 욕심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인간 뇌의 치명적 결함인 것 같다. 이를 통해 고위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들을 읽고 난 후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흑역사인 것 같다. 또한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들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

## 2. 3. 추천하는 이유

필자가 '인간의 흑역사'를 추천하는 이유로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현 인류를 본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현재의 인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한다. 책의 장점은 한 페이지씩 넘길수록 더 자세히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천천히 이 책을 읽다보면 인간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 할 수 있을 것이고, 꼭 욕심이 가득하고 어리석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인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인류의 좋지 않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 책을 추천했다.

## 3. 결론

요즘 세상엔 인간을 정의하려는 책들이 많다. 요즘 시대에 나오는 에세이 속에는 다양한 인간의 삶과 생각, 일상 등을 담고 있다. 인간을 정의하려 하는 여러 책들

중 저자가 외계생명체에게 추천 할 책은 ‘인간의 흑역사’이다. 대개 역사책 속에는 ‘인간은 뛰어나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인간의 위대한 역사’ 등 인간을 높이는 주제들을 많이 담고는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인간의 실수와 오류만을 모아둔 책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인간의 실수와 오류로는 식민주의, 비트코인, 전쟁 등 인간이 인간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실제 사례들이 나온다. 이런 인간의 여러 실수와 오류들을 인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외계생명체들이 읽으면 필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 모습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톰 필립스. (2019.10.10.). 인간의 흑역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월북